



효성은 육군 1군단 광개토부대에 독서카페 설치를 위한 지원금을 전달하는 등 부대 발전을 위한 지원 활동을 지속적으로 펼치고 있다. <효성 제공>

효성, 육군 광개토부대 위문금 4000만원

2010년 '1사 1병영 결연'

효성은 지난 11일 육군 1군단 광개토 부대에 위문금과 위문품, 독서카페 설치를 위한 지원금 등을 전달했다. 효성은 지난 2010년 광개토부대와 '1사 1병영 자매결연' 협정을 맺은 뒤 매년 부대를 방문, 부대 발전을 위한 지원 활동을 펼쳐왔다. 올해는 위문금 1000만원과 400만원 상당의 위문품, 독서카페 지원금 2600만원 등을 후원했다.

독서카페는 가로 3m·세로 9m 크기의 컨테이너형으로, 책 1000여권을 비치할 수 있고 14명이 동시에 사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효성은 장병들의 복무 중 자기계발 뿐 아니라 전역 후 원활한 사회 복귀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조현준 효성 회장은 "불철주야 조국의 안보를 책임지는 국군 장병들의 노고에 감사하다"는 메시지를 전했다. /김지을 기자 dok2000@kwangju.co.kr

양관운 AF 인베스트먼트 대표, 전남대 발전기금 12억



AF 인베스트먼트(대표 양관운)가 최근 전남대(총장 정병석)에 발전기금 개인 기부자 가운데 최고 금액인 12억 원을 기부했다. <전남대 제공>

손해보험협 호남본부 완도경찰서에 교통안전물품



손해보험협회 호남지역본부(본부장 김양식)는 최근 경찰청의 '보행자 사망사고 절반 줄이기' 사업, 광주·전남지역교통약자배려 캠페인 추진과 관련해 완도경찰서(서장 김선권)에 교통안전물품을 전달했다. <손해보험협회 호남지역본부 제공>

생활 게시판

여러분의 생활정보를 실어드립니다. opinion@kwangju.co.kr이나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24 SC제일은행 빌딩 9층 광주일보 생활게시판 담당자앞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TEL 062-220-0626 FAX 062-222-4938, 222-4918

화촉

▲노진영(전남복지재단 이사장)·백희숙(광주지역 사립유치원 연합회장) 씨 전남 재명군 박희섭·장희경씨 장녀 소현양=6월23일(토) 낮 12시30분 광주시 서구 상무누리로 55 홀리데이인 호텔 3층 컨벤션홀.

알림

▲일가정양립지원본부 무료 상담=가정 폭력, 성폭력, 성매매 등 상담. 국번없이 1366. 휴대전화를 사용할 경우 062-1366. ▲광주북구중독관리센터 무료 상담&주간프로그램 운영=알코올, 인터넷, 도박, 약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 대상 062-526-3370. ▲북구열린마음 상담센터 무료상담=정신건강&중독 무료상담(음주·우울·불안·스트레스·치매·인터넷) 지역주민 누구나 참여가능 062-526-3370. ▲광주남구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중독 문제(알코올, 니코틴, 인터넷, 약물, 도박)로 고민하는 대상자와 가족에게 무료

상담, 다양한 프로그램 제공 062-413-1195. ▲광주서구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마음건강자치운영=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를 통한 중독·자살·우울 문제 등 매주 수·금요일 오후 2시~5시 무료상담 062-654-3802. ▲비영리민간단체 노후를 돕는 사람들 노후생애를 위한 무료교육=50세 이상 중장년층 남녀 15기 모집 주 3일(월·수·금) 1일 2시간씩 6개월간 진행. 영어, 심리상담, 생애설계, 노래, 춤, 명심보감 등 진행. 062-223-1357. ▲사랑마루협동조합 사회적취약계층을 위한 복지장려서비스=기초생활 수급자, 조손가정, 무의탁 독거노인, 저소득층, 장애인(3급 이상) 장의입관용품무료지원, 장례지도사무료지원 062-369-4009. ▲습관성도박자 및 가족대상 전문상담 치료 및 병원위탁 무료 치료=성요한병원(6개월 무료입원 및 통원치료) 상담시간 월~토(오전 10시~오후 8시까지) 062-527-3400, 3403. ▲직적장애인 성인 주·야간보호 서비스 실시=월~금 오후 5시~9시 사랑모아 주간보호센터 062-385-0422.

▲지역주민의 정신건강을 위한 열린 마음 상담센터=북구지역 5개 아파트 단지 내 지역주민의 정신건강을 위한 무료 상담소(우울, 불안, 치매, 스트레스, 알코올, 흡연, 약물, 도박, 인터넷 등) 062-525-1195. ▲지역이동센터광주지원단 방과 후 돌봄 이용안내=방과후 돌봄이 필요한 아동들을 위한 보호·교육·정서지원·문화체험·식식 제공 등 다양한 서비스 제공 062-522-9976. ▲전남사회복지협의회 법률서비스 '법률콜센터' 무료 상담=민사·형사 소송 이전 법률상담과 법교육, 조력기관 연계 등 1차 법률서비스 지원 월·금 오전 10시 ~ 오후 5시 061-285-1161. ▲화순 효사랑 노인복지센터 무료 방문 =중풍이나 치매 등의 병으로 고통받는 화순 거주 노인들의 무료 방문 목욕 서비스를 원하시는 분 061-373-8865. **모집** ▲웰다잉(Well-dying)지도자 기본교육과정모집=연명의료결정법시행에 따른 행복할 삶, 아름다운 마무리. 23일부터 매주 토요일(4회) 김대중컨벤션센터 010-4031-5880. ▲광주시 한부모 가정지원센터 합창단=불행한 가정의 통합과 소통, 격려를 위한 혼성 합창단 모집. 062-675-5955. ▲한국범죄방지지도사 자격증 무료 취득 =성별, 연령 제한 없음. 광주시 동구 금남로 5가 169번길 호남본부. 062-515-7521.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광주가정위탁지원센터 위탁부모=부모 사망, 이혼, 실직, 가출, 학대 등으로 친부모와 살 수 없는 아이들을 일정 기간 위탁할 인원 상담 062-351-1206. ▲정원타이거즈 사회인야구 회원=야구에 관심 많은 사회인 야구단원 모집, 주말 연습 및 경기 진행, 문의 정원타이거즈 감독 010-9092-0343. ▲꿈을 돕는 사람들(광주학당)=한글, 기초반, 초등반, 중등반, 영어기초반, 한문, 컴퓨터 등 수시모집(무료강의), 서방시장 안쪽 관리사무소 옆 062-512-5788, 062-262-1542. ▲광주북구중독관리센터 무료상담=알코올 외에도 인터넷, 도박, 니코틴, 약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과 가족의 회복을 위해 무료 상담 및 정보제공, 교육 실시. 062-526-3370.

1분항소 062-231-8901. ▲전문수시 별세 전해송(한국시협연구원)·해경·인경씨 부친상 고은(전남대학교)씨 시부상 김희성(한국전력공사)씨 부부상=발인 13일(수) 조선대학교병원 장례식장 2분항소 062-231-8902. **부음** ▲양수정씨 별세=이정룡·호석·용옥·용석·희정씨 모친상 박명자·유영희·정혜경·김미경·김수복씨 시모상 서동현씨 빙모상=발인 13일(수) 조선대학교병원 장례식장

▲양수정씨 별세=이정룡·호석·용옥·용석·희정씨 모친상 박명자·유영희·정혜경·김미경·김수복씨 시모상 서동현씨 빙모상=발인 13일(수) 조선대학교병원 장례식장

謹 **삼가 故人의 冥福을 빕니다** 弔

본관 지하1층 5호 故김순애 님(여/78세) 女/婿 : 전영복/장복수, 전성복/김명도 孫 : 전국화, 김홍철	신관4층 특402호 故김재환 님(남/57세) 子 : 김경태 未亡人 : 이명자
○입 관 : 6월 12일 17:00 ○장 지 : 달암남면선영회 ○연락처 : 250-4405	○발 인 : 6월 13일 07:50 ○장 지 : 화순시선영회 ○연락처 : 250-4474
본관 2층 특9호 故홍성수 님(남/86세) 子/子婦 : 홍준기/최연숙, 홍순기/조귀화 女/婿 : 홍애경/박창화	신관 3층 특302호 故최정애 님(여/76세) 子/子婦 : 정영진/김윤리, 정광진/한영숙 女/婿 : 정혜경/박영식, 정지연/김철주 夫君 : 안창수
○입 관 : 6월 12일 11:00 ○장 지 : 세로나추모연회 ○연락처 : 250-4409	○발 인 : 6월 13일 09:00 ○장 지 : 영락공원회 ○연락처 : 250-4472
본관2층 특7호 故김승재 님(남/87세) 子/子婦 : 김상수, 김성민/김미숙, 김성민/정명희 女/婿 : 김성순, 김성희/유병석, 김성근/홍두표	
○입 관 : 6월 12일 15:00 ○발 인 : 6월 13일 07:00 ○장 지 : 나주시유안선영회 ○연락처 : 250-4407	

그린장례식장 24시 대기 **062-250-4455**
www.그린장례식장.com
회장 김 영 관

“땀 흘린 만큼 좋은 결실 맺어 뿌듯해요”

청소년박람회 동아리 경진대회 대상 '일탈' 리더 김나람 군

“땀 흘린 만큼 좋은 결과가 나와 기쁘다. 앞으로도 저희 구성원들이 좋은 무대를 경험할 수 있도록 수준 높은 안무를 선보일 생각입니다.” 전통 탈춤과 현대 힙합·팝 음악을 접목한 춤으로 전국 정상에 오른 동아리이다. 광주시 서구청소년문화의집 댄스동아리 '일탈'이 '대한민국청소년박람회 동아리경진대회'에서 대상(여성가족부장관상)의 영예를 차지했다. 동아리 '일탈'의 리더이자 안무를 맡았던 김나람(광주대 청소년상담평생교육과 4학년) 군은 여타 동아리와 달리 전통과 현대가 어우러진 창작안무로 색다른 무대를 연출해 주목을 받았다. 김 군은 “평일 오후 시간과 매주 주말을 반납하고 연습실에 나와 열심히 연습했다”며 “지금까지 춤을 추면서 적잖이 오해도 받았지만 좋은 결실을 맺게 돼 뿌듯하다”고 밝혔다. 이번 동아리경진대회는 전국 예선을 거쳐 12개 팀이 결선에서 기량을 겨뤘다. '일탈'은 이름만큼이나 기운의 틀을 벗어난 작품을 지향한다. 작품 제목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팀 이름자체가 작품의 제목이자

주제를 내포한다. 김 군은 “지금까지 본 적 없는 공연을 보여주기에 위해 실험적인 댄스를 선보였다”고 밝혔다. 이번 대상 작품도 그런 연장선에서 탄생했다. “무형문화재34호로 등록된 강령탈춤 보유자 정재일 선생님께 탈춤을 배우고 있습니다. 이번 공연에도 중간에 호랑이 탈춤이 나오거든요. 전통춤과 힙합, 팝핀이 어우러진 안무가 특징이죠. 선생님이 조언도 많이 해주시고 공연할 때는 물품도 빌려주시죠.” 현재 동아리 회원은 모두 9명이다. 청소년과 대학생, 일반인 등이 골고루 참여하고 있다. 김 군은 “향후에는 좀더 체계적이고 시스템화 된 동아리로 가꿔 지원사업



댄스동아리 '일탈' 회원들이 탈춤과 힙합을 접목한 새로운 댄스를 연습하고 있다. <일탈 제공>

등에도 도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또한 폭 넓은 무대 경험도 쌓아 춤을 매개로 다양한 활동도 전개하고 있다. 그렇다면 김 군은 언제부터 춤을 추게 됐을까. “중학교 때부터 시작했다”는 그는 “춤이 취미이기도 하지만 향후에는 춤을 활용해 청소년 지도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싶다”고 덧붙였다. 사실 처음에는 부모님이 춤추는 것을 이해하지 못했다고 한다. 군 제대 후 학업과 춤을 병행하면서 설득시켰다고 한다. 그는 지금은 “다치지 않고 잘 하라”는 말씀을 한다며 웃었다.

김 군은 춤이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도 분명한 철학을 갖고 있다. 학업에 지친 학생들에게 춤은 좋은 취미라고 강조했다. 앞으로는 구성원들을 위한 무대와 안무를 마련하는 데도 심혈을 기울일 생각이다. “넓은 무대와 많은 관객, 조명 등 시설이 잘 갖춰진 공간에서 기량을 펼칠 수 있도록 도움을 줄 계획입니다. 또한 춤 분야로 진로를 결정한 후배들에게는 자신만의 안무도 공연을 할 수 있도록 노하우와 아이디어를 제공하고 싶어요.”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희망 전도사’ 김홍빈 대장 히말라야 가서브룸 I 원정

18일 출국...8000m급 14좌 중 13번째 등정 도전

지난달 히말라야 안나푸르나(8091m) 정상에 올라 장애인으로는 세계 최초로 8000m급 12좌 등정에 성공한 김홍빈(전남도교육청·광주전남학생생안연맹 회장) 대장이 한 달여 만에 다시 가서브룸 I(8068m) 원정에 나선다. 가서브룸 I 정상에 오르면 김 대장은 히말라야 14좌 완동에 브로드피크(8047m) 한 개 봉만을 남겨 놓게 된다. ‘희망 나눔’ 2018 김홍빈 가서브룸 I 원정대는 오는 18일 파키스탄으로 출국, 8월 중순까지 두 달여 동안 카라코람 히말라야의 가서브룸 I 등정에 도전한다. 세계 11위의 거봉인 가서브룸 I은 발타어로 ‘빛나는 산’을 뜻하며, 정상이다른 봉우리들에 가려져 잘 보이지 않는 까닭에 히든 피크(Hidden Peak)라고도 불린다. 김 대장은 지난 2006년 이 봉우리 원정에 나섰지만 정상 공격을 시도하다 기상 악화로 제3캠프(7200m)에서 철수한 바 있다. 가서브룸 I 원정은 봉우리에 접근하는 것 자체가 멀고도 험한 여정이다. 파키스탄의 수도인 이슬라마바드에서 인더스강을 따라 칠라스와 스카르두를 거쳐 마지막 마을인 해발 3050m의 아스쿨리까지 꼬박 이틀간 버스와 트럭으로 이동해야 한다. 아스쿨리에서 베이스캠프(5300m)까지는 황량한 모래인(moraine·빙하에 밀려서 쌓인 암석이나 자갈) 지대와 길이 60km의 발토로 빙하(Baltoro Glacier)와 고드윈 오스틴 빙하를 거슬러 오르는 8일간의 카라반을 거쳐야 한다. 김 대장은 다음달 2일 베이스캠프를 구축하고 해발 5900m에 제1캠프, 6400m에 제2캠프, 7200m에 제3캠프 등 세 개의 전진 캠프를 설치한 뒤 다음달 말에서 8월 초 사이 정상 공격을 시도



김홍빈 대장



파키스탄 카라코람 히말라야의 가서브룸 I(8068m)봉

할 계획이다. 지난 1991년 북미 매킨리(6194m) 단독 등반 도중 사고로 열 손가락을 모두 잃은 김 대장은 역경에도 굴하지 않고 1997년부터 세계 7대륙 최고봉을 모두 올랐고, 2006년 가서브룸 II(8035m) 등정을 시작으로 히말라야 8000m급 14좌 도전에 나서 지금까지 12좌 정상을 밟았다. ‘불굴의 산악인’ ‘희망 전도사’로 불리는 이 유다. 김 대장은 이번 가서브룸 I 등정에 성공하면 내년에 브로드 피크 원정에 나서 14좌 등정에 마침표를 찍는다는 계획이다. 이번 원정은 광주장애인총연합회가 주최하고 (사)광주전남등산학교가 주관하며 문화체육관광부와 흥중건설, 미르치과네트웍스가 후원한다. /정후식 기자 who@kwangju.co.kr

국가무형문화재 제8호 박양에 강강술래 보유자 별세

국가무형문화재 제 8호인 강강술래 보유자 박양에 씨가 11일 노환으로 별세했다. <사진> 향년 83세. 1935년 전라남도 해남군 문내면에서 태어난 고인은 강강술래 전통 계승과 보급에 평생을 헌신했다. 1975년 국무총리상, 1976년 대통령상 등을 수상했으며, 그 공로를 인정받아 국가무형문화재 제8호 강강술래 보유자로 2000년 7월 22일 인정됐다. 강강술래는 노래와 무용, 음악이 어우러진 종합예술로 설, 대보름, 단오, 백중, 추석 등에 연행된다. 춤을 추는 여성 중에서 한 사람이 선소리하면 모든 사람이 뒷소리를 받는 선후창 형태로 노래가 불리며, 노랫소리에 맞춰 많은 여성이 손에 손을 잡고 동글게 원을 그리며 춤을 춘다. 임진왜란 때 일종의 군사 전략으로 활용됐고, 이후 본격적으로 활성화됐다. 유족으로는 2남 3녀가 있다. 빈소는 해남 문내면 우수영장례식장에 마련됐으며 발인은 14일 오전 9시 30분. 061-533-4440. /연합뉴스

